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The analysis of cultural adaptation patterns and processes experienced
by immigrated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팀장 한은진**

Ik-san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The headman of Rainbow School Han, Eun-Ji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suggestions to help immigrated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become successful members of Korean society while preparing to enter schools or becoming involved in social activities.

The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three issues using grounded theory: (1)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daptation for immigrated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2) their acculturation processes; and (3) their different patterns of acculturation experience.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involves (1) feeling timid, (2) feeling regretful and angry, (3) looking around and making an attempt, (4) feeling difficulty and feeling left out, (5) accepting reality and seeing Korea in a positive light.

The core of acculturation among the immigrated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a limited living in an unfamiliar culture. Five acculturation patterns were found in the current study: (1) Someone who is actively striving for future dreams; (2) someone who adjusts himself/herself to circumstances without plans; (3) someone who passively makes an effort; (4) someone who accepts reality to continue education; and (5) someone who temporarily stays for financial reasons.

* 위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주저자, 교신저자 : 한은진(sole34@hanmail.net)

Key Words : 중도입국청소년 (immigrated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 문화적응과정 (the process of cultural acculturation), 문화적응유형 (cultural acculturation patterns)

I. 서론

최근 한국사회 안에 각기 다른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와의 결혼, 한국 남성과 국제 결혼한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2012)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국에는 222,687명의 결혼이민자와 162,333명의 자녀가 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규모는 약 2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2).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일정기간 동안 외국에서 성장과정을 거치고 입국하는 청소년들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모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국가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이다(양계민·조혜영, 2011).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전자의 경우로 제한하였다. 후자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성장하고 사회화되던 과정에서 이주를 한다는 특징은 같지만 부모가 친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기 때문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능력 부족, 문화 부적응, 가족 불화, 정체성 혼란, 체류신분의 불안정, 고립감과 외로움 등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다. 모국에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소외감을 갖고 생활해 오다가, 한국이주 후에도 한국어를 모르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들은 모두 일하러 나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끼면서 무료하고 심심하게 시간을 보낸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변화에 대한 사전 인식 없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무 준비 없이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모국에서 일부 사회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문화 적응의 문제가 심각 할 것이다(오경석, 2010).

지금까지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미비한 상황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과 적응 유형을 밝힌 연구와(이병철·송다영, 2011), 언어불안과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김지혜, 2009; 안윤지, 2011).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조사와 정책적 지원에 관한 연구(오경석·양계민·조성원·류성환·조윤희·정혜실·이장혁, 2009; 이재분, 2011; 양계민·조혜영, 2011), 교육적 지원(김진희, 2011; 박지윤, 2011; 류방란·오성배, 2012), 한국어교육 연구(이소라, 2012; 최영권, 2012), 진로(조혜영·양계민, 2012; 오성배·서덕희, 2012), 가족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1) 등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로써 학교에 진입하지 못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적응문제는 연구되지 않았다. 한국사회 초기적응 문제는 향후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초점을 둔 연구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을 돕는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이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2010년부터 전국 10개소 정

도에 재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과 기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예비학교를 지정하여 학교진입예정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상 전국적으로 지원기관의 수가 적어서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다. 입국초기 중도입국청소년이면서 학교나 사회진입 이전의 청소년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여 초기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적응지원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목적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입국 후 학교 진입이나 사회 진출이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경험을 토대로 문화적응 과정과 적응 유형을 살펴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나 사회 진입 이전의 공백 기간에 효율적이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나 사회 진입의 이전 단계란 한국 입국이후부터 학교 입학 이전이나 적절한 취업 이전의 단계를 의미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의 문화적응 경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은 무엇인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경험 특성

중도입국청소년의 입국 전 국적은 대부분이 중국으로 전체 90%이상을 차지하고, 서울 경기

지역에 68.8%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이 6.8%, 충남, 부산, 전북 순이다.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대다수가 17세 이상 후기 청소년이며, 20세 이상이 38.2%로 가장 많다. 모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자 입국하는 경향이지만 중고등학교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들도 지속적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양계민·조혜영, 2011; 오성배, 2011).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가족 간의 불화, 문화적응 스트레스, 언어나 학업문제, 학교교육체계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고국에 대한 향수병, 외로움,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과 같은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다(양계민·조혜영, 2011). 특히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언어와 가족생활, 사회관계, 정체성 등이다(서문화·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 2010; 양계민·조혜영, 2011; 조옥이·박석준, 2011).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어머니와 별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낮 설음, 의붓아버지에 대한 낮 설음, 의붓아버지와 의사소통 부재, 문화차이 등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오경석, 2010). 중도입국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가사노동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맞벌이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송복희, 2012).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구조와 남녀 불평등한 문화차이로 인해 초기 의붓아버지와 적응이 어려울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의붓아버지의 무관심이나 교육적 지원의 회피를 경험하기도 한다(양계민·조혜영, 2011).

한편 개인의 언어 능력은 문화적응의 핵심요소이고, 문화적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주요 채널로서 한국 사회로의 문화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

들은 입국 초기 한국어 활용수준이 거의 백지인 상태로, 적절한 언어학습 환경의 부재 속에서 한국사회의 정착을 경험하고 있었다(안윤지, 2011). 따라서 모국이나 한국에서 학교 진입 이전의 공백과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편입학이 어렵다. 특히 나이가 학급 동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학교 입학 시에 갖추어야 될 서류절차가 어렵고 학교생활에서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문화적응 시에 경험하는 어려움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크고, 학업을 마치고 온 청소년들은 진로를 선택해야 하지만 언어와 사회문화 차이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으로 이주를 통해 익숙한 문화로부터 새로운 문화로 옮겨오게 된다. 문화적응은 이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를 비롯한 법과 제도, 관습, 문화 습득과 같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단순히 모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한국사회 문화에 동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사회의 문화, 관습,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자신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란, 2006).

문화적응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타문화 적응에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언어, 역할기대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화적 갈등, 통제감 상실, 무력감, 낮은 자기 확신, 성격 유형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 정체감혼란, 우울, 학교중도탈락, 약물남용, 비행행동, 세대 간 갈등을 경험한다(Kim & Gato, 2000).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서 살게 될 때 겪는 변화의 과정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문화적응 과정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응 단계 이론은 리스가드(Lysgaard, 1955)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대상자들을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0-6개월, 6-18개월, 18개월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국외에 거주한지 6-18개월 된 이주자들이 6개월 미만이나 18개월 이상 된 사람들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강유미·신혜중, 2010 재인용).

Oberg(1960)는 문화충격이 일반적으로 공포, 불안, 무망감 등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관계가 있지만, 이주자들은 전형적으로 문화충격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만족한 적응을 성취한다. 즉 타문화에 체류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첫째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황홀, 감탄, 열정을 느끼는 시기인 밀월단계. 둘째 위기 단계로서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함 등을 느끼는 단계이다. 셋째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시기로 회복 단계이고, 마지막은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으로도 유능해지는 적응 단계이다. 이처럼 문화적응과정은 리스가드의 적응단계와 유사한 U-곡선으로 그려진다(구치순, 2007 재인용).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문화적응 과정 연구는 미미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 단계는 ‘구성과 탐색의 단계(혼란과 두려움)’, ‘발견과 이해의 단계(시도해봄)’, ‘참여와 전환의 단계(자신의 입장 수용)’, ‘지속가능성의 단계(어울림)’로 나타났다(이병철·송다영, 2011).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단계에 관한 연구는 ‘혼돈과 갈등의 단계’, ‘둘러보고 시도해 봄 단계’, ‘조화로 위치를 찾음 단계’,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구치순, 2007), 이는 ‘문화차이와 갈등단계’, ‘이해와 배려단계’, ‘서로 맞추어가는 단계’, ‘안정된 적응단계’로 나타난 연구(강유미·신혜중, 2010)와 유사하다. 따

라서 이러한 몇몇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의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학교나 사회 진입 이전의 중도입국청소년들도 입국초기에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점차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새로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는가는 이들의 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친다(Coleman et al., 2001). 따라서 한국사회 문화적응 시에 모든 개인과 집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Lin(1982)은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주변적 신경긴장성 유형, 주변적 일탈형, 전통주의형, 과동화형, 이중문화형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주변적 신경긴장성 유형은 양쪽 문화에서 기대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마비상태가 되는 경향이다. 주변적 일탈형은 양쪽 문화의 기대, 기준을 모두 무시하고 양 문화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유형이다. 전통주의형은 상실감, 문화적 충격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 모국 문화에 강하게 집착하는 유형이고 과동화형은 모국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정착사회의 문화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유형이다. 이중문화형은 양쪽 문화의 좋은 것을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유형이다(강현주, 2007 재인용).

국성하(1996)는 소수 사회와 다수 사회의 상호관계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전승형, 방어형, 차별형, 동화형, 현대화형, 변환형 등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전승형은 소수 사회와 다수 사회의 문화가 동일한 경우이고, 방어형은 양 사회 간 문화가 다를 때, 소수 사회에서 자신

의 정체성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문화를 더 강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별형은 다수 사회의 문화를 소수 사회에 전달시킴에 있어 계층 분리의 목적을 지니는 경우, 동화형은 다수 사회의 문화를 소수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대화형은 현대화를 위해 다수 사회가 소수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유형이고, 변환형은 소수 사회의 성원에게 다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은 적극형, 우유부단형, 혼란형으로 나타났다. 적극형은 억울함과 주눅 들음을 이겨내고 주어진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해 나가는 유형이다. 우유부단형은 시간이 갈수록 적응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적고 문화적 차이에 늘 불편해 하며 교류관계도 제한적이다. 혼란형은 억울함, 주눅들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도 낮고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다(이병철·송다영, 2011).

이와 같은 연구에서 문화적응 유형은 이주자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방식에 따라서 적응 유형을 분류하거나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유형은 학교적응 유형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참여자들이 많으므로 좀 더 다양한 유형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근거이론방법의 이론적 표본추출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국제결혼 재혼 가정의 청소년들을 표집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어머니가 모국에서 이혼 후 한국인과 재혼했으며, 어머니의 이혼 후 모국에 남아 어머니와 별거해왔고, 어머니의 요청으로 한국입국 이후 안정적인 학교생활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6개월 이상~5년 이하 체류 중인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의 청소년이다. 조사대상자의 체류기간이 한정된 이유는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중도입국청소년은 찾을 수 없었고, 6개월 이하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생활경험이 적어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민감성을 위해 접근과 관찰이 용이한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위해 IK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과정에서 학교에 편입학하게 된 경우 6개월 이하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방법은 연구주제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없고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Creswell, 2007; 최종혁,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들의 한국사회 문화 적응과정이나 적응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자료의 분석은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에서는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중심현상 또는 기본적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실체적 이론 개발을 위해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 과정을 거쳐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도출하고 그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면접은 참여자의 전반적인 특성상 경제심이 높은 경향이어서 최대한 통역 없이 연구

자와 참여자 간 개별면접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여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참여자가 통역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 검증

연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근거이론에 기반한 Guba와 Lincoln(1994)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을 따랐다. 사실적 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료수집과정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각각의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쳤다. 적용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 2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 3인에게 본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증을 부탁하였다. 일관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참여자가 소속해 있는 IK 레인보우스쿨에서 1년 반 이상 지도경험이 있는 한국어 강사 3인,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지도를 맡은 가정학 박사 1인, 중도입국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상담을 맡은 IK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1인에게 개념 및 범주의 적절성, 그리고 패러다임 모형의 구성과 과정분석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논의과정을 거쳤다. Guba와 Lincoln(1994)은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앞의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에 획득된다고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18.9세로 9세~13세 2명, 14~16세 1명, 17세~19세 3명, 20세 이상 10명이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2세이다. 한국인 아버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본인 (모)	연령 계부 (친부)	성별	출신 국	현재신분 (학력)	한국 거주기간 본인 (모)	체류 자격 본인 (모)	가족 구성	친부 연락 정도	귀환 의사	모의 이혼 시기	모 이혼후 본인 거주지
1	10 (31)	44 (31)	남	중국	학생 (초등2)	1년9개월 (3년정도)	F-2 (F-2)	부모 의붓형제 2 본인	안함	없음	18개월	유치원 외가
2	13 (41)	52 (모름)	여	중국	학생 (초등6)	1년4개월 (3년정도)	F-2 (F-2)	부모 본인	한달 2회	있음	10세	친가
3	14 (37)	54 (39)	남	중국	학생 (초등6)	1년4개월 (3년정도)	F-2 (영주)	모 본인	한달 2회	없음	4세	외가
4	17 (41)	45 (모름)	여	중국	비학생 (중3예정)	11개월 (7년정도)	F-2 (F-2)	부모 본인	안함	모름	4세	외가
5	17 (40)	62 (모름)	남	중국	비학생 (중졸)	9개월 (3년정도)	F-2 (F-2)	부모 본인	안함	없음	14세	친가
6	18 (47)	55 (모름)	남	필리 핀	비학생 (초졸)	1년7개월 (10년정도)	F-1 (한국)	조모, 부모 본인 친여동생	안함	없음	10세	누나 동거
7	20 (46)	60 (46)	남	중국	비학생 (고졸)	2년10개월 (3년정도)	한국 (F-2)	본인	한달 2회	있음	4세	기숙사
8	20 (46)	45 (53)	남	중국	비학생 (고졸)	1년2개월 (10년정도)	F-2 (영주)	본인	일주일 1회	있음	12세	부
9	20 (41)	46 (46)	여	중국	비학생 (고졸)	2년8개월 (4년정도)	한국 (한국)	본인	없음	있음	13세	친가
10	21 (43)	53 (44)	여	중국	비학생 (고졸)	2년4개월 (3년정도)	한국 (한국)	본인	안함	있음	4세	외가
11	21 (43)	53 (44)	여	중국	비학생 (고졸)	9개월 (2년정도)	F-2 (F-2)	본인	한달 1회	있음	13세	기숙사 부1년
12	21 (45)	55 (43)	여	중국	비학생 (고졸)	2년10개월 (3년1개월)	한국 (영주)	본인	없음	있음	4세	외가
13	22 (42)	56 (48)	여	중국	비학생 (고졸)	3년3개월 (6년정도)	한국 (한국)	본인	일주일 1회	있음	3세	외가
14	22 (39)	54 (모름)	남	중국	학생 (고1)	2년 (3년정도)	F-1 (한국)	본인	안함	없음	4세	외가
15	23 (46)	47 (47)	남	중국	비학생 (고졸)	4년1개월 (7년4개월)	F-1 (F-2)	본인	일주일 1회	있음	6세	친가
16	24 (47)	59 (46)	남	중국	비학생 (고1중퇴)	3년4개월 (3년정도)	F-1 (한국)	본인	안함 (사별)	없음	4세	친가

지의 평균연령은 52세이고 모국 친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의붓아버지와 친아버지의 연령차이가 많은 편(평균 9세)이다. 성별은 남자 9명, 여자 7명이며, 출신국은 중국 15명, 필리핀 1명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 어머니를 찾아 왔지만 어머니와 같이 살지 못하고 홀로 살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참여자들은 현재신분이 학생 4명, 비 학생 12명으로 학생 4명은 연구과정에서 학교에 편입학하게 된 경우들이다. 또한 이들은 17세 이상 모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을 해야 하는 청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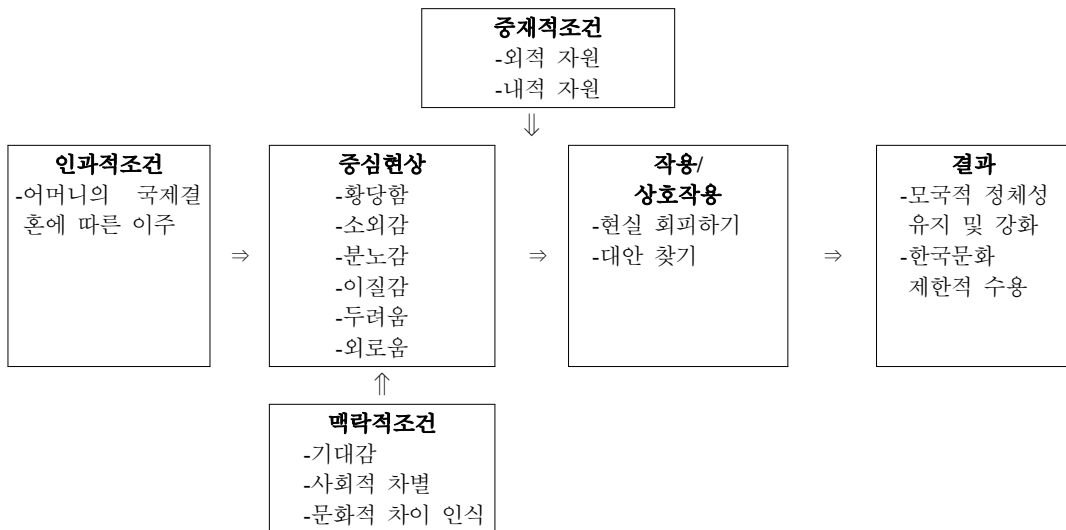
1.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경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선택된 82개의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36개의 하위범주를 집

약한 후, 16개의 범주를 정하고 축 코딩 과정에서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한 6개로 구성된 패러다임을 다음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

1)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경험의 패러다임에 따른 분석

축코딩 과정에서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패러다임화 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어머니의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로 나타났다. 중심 현상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고 구체적 정서는 ‘황당함’, ‘소외감’, ‘분노감’, ‘이질감’, ‘두려움’,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기대감’,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이 인식’이고, 중재적 조건은 ‘외적 자원’, ‘내적 자원’이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실 회피하기’, ‘대안 찾기’, 결과는 ‘모국적 정체성 유지 및 강화’, ‘한국문화 제한적 수용’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특성을 살피기 위한 분석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패러다임 모형

〈표 2〉 자료의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개념(82개)	하위범주 (36개)	범주(16개)	패러 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와 동거를 위해 한국 입국밖에 대안이 없음 (참여자 전체) •어머니 부재로 인한 모국 삶의 어려움 (참여자전체) 	비자발적 이주	어머니의 국제 결혼에 따른 이주	인과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하지 않음(참여자전체) •한국어 준비 시도(16) 	사전준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붓아버지의 술주정과 특이한 성격(1, 5, 12, 14, 16)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불화(2, 5, 7, 8, 9, 11, 16) •의붓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2, 8, 9, 14) •나로 인해 어머니가 이혼하고 삼혼함(3) •어머니에 대한 원망(3, 9, 10, 11, 16) 	어머니의 불행	황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 대한 환상이 깨짐(참여자 전체) •경제적 고통(7, 10, 16) •학교 편입학과과정에서 좌절하고,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에 좌절함(3, 4, 7, 12, 15, 16) •한국어가 어려운 현실을 예상하지 못했음(8, 9, 10, 15, 16) 	기대가 무너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들과 대화할 수 없어 이방인 같음(1, 2, 3 5, 6, 7, 8) •의붓 형제들과 불화(1, 7, 10, 13) 	가족관계에서 소외감	소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친구들에게 배척당함(1, 2)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함(2, 3) 	친구관계에서 소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붓아버지가 때리고 욕함(1) •의붓아버지가 한국음식을 던지고, 인터넷 선을 자름(5, 6) 	의붓아버지의 폭행	분노감	중심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붓아버지가 경제적 자립을 원함(5, 6, 11, 16) •의붓아버지의 심한 간섭(1, 3, 5) 	의붓아버지에 대한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가 어려움(2, 3, 4, 5, 6) •한국어를 못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움(3, 5, 15) 	언어적 곤란	이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음식 부적응(참여자 전체) •한국 반찬의 거부감(참여자 전체) 	한국 음식의 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붓아버지가 모녀관계를 질투함(12) •의붓아버지와 둘이만 있는 시간이 어색함(5, 6, 10, 11, 12, 14) 	의붓아버지가 불편함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9, 10, 11, 12, 13)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의 성적 측면을 염려함(2, 11, 12) 	의붓아버지의 성적 측면 염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의 차별 행동(3, 14) •어머니의 모국 귀환 명령(2, 3) 	어머니와 관계 단절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부재와 모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참여자 전체) •낯선 이국땅에 대한 불안감(참여자 전체) 	가족 및 친구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로 살게 됨(7, 8, 9, 10, 11, 12, 13, 16) •어머니와 오랜 별거로 부모자녀관계 어색함 (1, 2, 3, 4, 7, 10, 11, 12, 13, 14) 	어머니와 소원함	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삶을 기대함(10, 16)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얻어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음 (7, 8, 12, 13, 15, 16) 	개인적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와 동거에 대한 기대(7, 12, 13, 14)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1, 2, 3, 4, 5, 6, 12, 13, 14, 16) 	가족적 기대	사회적 차별	백락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람과 임금차별을 경험함(7, 9, 10, 12, 13) •한국인은 타민족에 배타적임(8, 9, 10, 13, 15, 16)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시하는 말을 들음(9, 10, 13) •한국말을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함(8, 13, 15, 16) 	무시		

개념(82개)	하위범주 (36개)	범주(16개)	패러 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예절 문화가 힘들(1, 3, 5) •가사노동분담 문화의 차이(9, 10) •모국의 부자관계는 동등함(5, 14) •모국의 교사-학생관계가 수평관계임(3, 14) •한국은 선후배 관계가 명확함(7, 8, 9, 12, 13, 15, 16) 	수직적 문화차이 인식	문화적 차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학교에 규칙이 많아서 힘들(1, 2, 3, 14) •한국은 남의 일에 관심 많은 문화(7, 9, 12, 14, 16) •남녀사이에 대한 문화 차이(11, 12) •결혼 문화의 차이(8, 16) 	정서적 문화차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붓아버지가 친아버지보다 더 좋음(2, 4) •어머니와 모국에서 온 친척들의 관심과 도움(3, 15) 	가족의 지지	외적 자원	중재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국친구들과 한국생활의 정보를 나누고 마음의 위로를 받음 (참여자 전체) •한국 친구를 통해 한국어를 배움(2, 5, 11, 12) 	친구의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수업과 행사 참여(참여자 전체) •레인보우스쿨 선생님들의 도움(참여자 전체) 	지역사회의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감과 좋은 성격(5, 7, 16) •한국생활적응을 자랑스러워함(4, 5) 	자기존중	내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지가 강함(7, 11) •사교적인 성격(4, 12, 13, 15)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붓아버지를 싫어함(1, 3, 5, 7, 8, 9, 16) •의붓아버지를 법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모국의 친아버지를 생각함(7, 11, 14) 	의붓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음	현실 회피하기	작용 / 상호 작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게임, 음주와 담배, 잠자거나 먹는 것으로 잊어버리기 (2, 3, 4, 7, 8, 9, 12, 14, 15) •당면한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현실 회피(2, 3, 4, 5, 6) •모국보다 나은 환경에 우선 만족함(3, 4, 5, 6) 	미래를 생각하기 싫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을 수용하고 목표를 설정함(7, 8, 9, 10, 11, 12, 14, 16) •한국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열심히 공부하기(3, 8, 10, 11) •한국국적 취득하기(7, 9, 10, 12, 13) 	미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하기(7, 8, 9, 10, 11, 12, 13, 16)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 찾기(8, 11, 13, 15, 16) •모국방문 계획세우고 모국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기 (2, 8, 9, 10, 12, 13, 14, 16) •인터넷 사이트 자조모임에 나감 	적응방법 찾기	대안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국어와 모국의 음식을 먹고 모국에서 온 친구들과끼리만 어울림 (1, 2, 3, 4, 7, 9, 10, 11, 12, 13, 15, 16) •모국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모국사람이라고 생각함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모국문화 정체성이 강함	모국적 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국 귀환 계획이 있고 친아버지와 연락을 자주 취함 (2, 7, 8, 9, 10, 11, 12, 13, 15)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싫음(2) 	일시적 체류로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좋고 기술이 발달했음 (5, 7, 8, 12, 13, 14, 15, 16) •한국의 공기가 좋고 쾌적하며 깨끗함(참여자 전체) 	한국문화의 장점 인정	한국문화의 제한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한국에 살고 싶음 (2, 4, 5, 6, 7, 9, 10, 11, 12, 14, 16) •모국에 여행 갔을 때 한국 음식과 김치가 생각남(16)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		

(1) 인과적조건

① 어머니의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

ㄱ. 비자발적 이주

참여자들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으며,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어 좋다고 하였다. 참여자 6, 15, 16은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었고 16은 더 이상 모국에서 혼자 살기 어려워 절박한 심정이었다. 참여자 14, 15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주를 결심하였다.

엄마랑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한국 와야 해요(참여자 전체). 엄마 없이 중국에서 혼자 살기 힘들었어요. 엄마가 중국에 있기 힘들면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 전화 받고 기뻐요(참여자 16).

ㄴ. 사전 준비 없음

참여자 대부분은 아무 준비 없이 한국에 왔으며 모국에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시도하였으나 한국어 학원에 남자가 한 명도 없어 포기하였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는 정도였다.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준비는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참여자 1, 2, 3, 4, 5, 6, 7, 8, 10, 11, 13, 14, 15, 16). 한국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한국 어학원 알았어요. 한국어 공부는 안하고...(참여자 9).

(2) 중심현상

① 황당함

ㄱ. 어머니의 불행

참여자들은 의붓아버지의 음주 행동, 이상한 성격, 경제적인 무능함에 놀라며 어머니의 불행

을 황당하게 생각한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지만 꿈이 좌절되었다.

한국 아빠 술 먹고 엄마한테 화내요. 술 먹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참여자 1, 14). 한국아빠 돈 안 벌고 매일 놀아요(참여자 2, 9).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싸워요. 이혼했어요(참여자 3).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엄마가 불행해 보여요(참여자 2, 5, 7, 8, 9, 11). 중국친구들 다 대학 다니고 있어. 대학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한국에 오라고 했어. 대학가고 싶은데 한국국적취득해서 수능시험 봐야 해(참여자 9, 10).

ㄴ. 기대가 무너지짐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모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 실망한다. 오히려 모국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 즉, 연령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기 어렵고,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과 어려운 취업환경, 경제적 어려움, 한국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

한국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만 봤는데 실망했어요(참여자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참여자 7, 16).

중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어요. 이제 14살 중학교 가는지 알았는데...(참여자 3).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돼요. 한국은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야 해요. 한국 이렇지 몰랐어요(참여자 7, 16). 중국에 살았으면 한국말 안 배워도 돼. 한국어 배워야 하는 거는 알지만 힘들거란 생각은 못했어요(참여자 3, 10, 1, 16).

② 소외감

ㄱ. 가족관계에서 소외감

참여자들은 새롭게 형성된 가족 속에서 자신

과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자신을 제외한 가족원들은 친밀하게 대화하나 자신만 소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소외감이 든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의붓아버지와 의붓 형제들의 눈치를 보게 되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말 못 알아들어. 가족들끼리 한국말하면 나에게 나쁜 말 하는 것 같고...(참여자 1, 2, 3, 5, 6, 7, 8). 한국아빠의 딸은 우리 엄마하고도 말 안 해. 내가 말 걸어도 대꾸도 안 해(참여자 13). 한국아빠 딸이랑 때리고 싸워(참여자 10).

ㄴ. 친구관계에서 소외감

한국 학교생활에서 친구들이 놀리고 때리며 따돌리고, 한국인 친구들끼리는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아 소외감을 느낀다.

친구들이 신발 던지고 주워 오라고 해요. 놀리고 때려...(참여자 1). 친구들이 선생님 몰래 내 핸드폰 가져다 물에 빠뜨렸어요(참여자 2).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 자요. 쉬는 시간에 나 혼자예요(참여자 2, 3).

③ 분노감

ㄱ. 의붓아버지의 폭행

참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처음 대면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은 의붓아버지이다. 참여자들 중 의붓아버지를 특별히 좋아하는 참여자(2, 4, 15), 의붓아버지의 존재가 별 의미가 없는 참여자(10, 11, 12, 13, 14), 의붓아버지가 싫은 참여자(1, 3, 5, 6, 7, 8, 9, 16)가 있다. 의부를 싫어하는 사례들은 의붓아버지가 때리고 욕하며, 사사건건 칭찬 없이 잘못만을 지적한다.

아빠가 “야! X새끼야!”라고 해요. 아빠 큰 아들 군대 가기 전에는 “야! X새끼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군대 간다”.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내

탓이라고.... 머리도 때리고... 얼마 전에는 엄마와 나를 내쫓았어요(참여자 1). 한국 아빠가 김치 안 먹는다고 나한테 김치 던졌어요. 나 기분 아주 안 좋아요(참여자 6). 아빠가 인터넷 선도 잘랐어요. 공부안하고 밤늦게까지 게임한다고...(참여자 5).

ㄴ. 의붓아버지에 대한 분노

참여자들의 입국이후에는 부부싸움이 잦아진다. 어머니는 자녀와 떨어져 산 기간에 대한 미안함으로 무조건 감싸고, 의붓아버지는 감싸는 어머니와 충돌하며, 의붓 자녀의 입국으로 인해 부양할 가족이 늘어나는데 대한 부담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아빠, 엄마가 두 달간이나 싸웠어요. 너(엄마)에게 니 딸(나) 밖에 없다고. 지금 엄마 돈 벌어요. 한국 아빠는 돈 많이 든다고 나 대학가는 거 싫어해요(참여자 11). 한국 아빠가 엄마에게 내 용돈 끊으라고 말해요(참여자 16). 아빠는 사사건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해요(참여자 1, 3, 5).나 매일같이 샤워하는데 아빠가 “야 씻어. 샤워해. 더러워”이렇게 말해요. 나도 씻으려고 했는데...(참여자 1).

④ 이질감

ㄱ. 언어적 곤란

참여자들은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한국생활 경험이 있는 참여자 7, 8, 9, 10, 12, 13, 15, 16은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레인보우스쿨에 들어왔으나 참여자 10은 한국어능력 시험 준비과정에서 포기할 만큼 한국어가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참여자 전체). 캄캄해지면 집을 못 찾을까봐 걱정돼요(참여자 3). 병원 갈 때마다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참여자 15).

ㄴ. 한국 음식의 부적응

참여자들은 모국과 한국의 음식문화가 달라서 초기에 음식적응을 힘들어 한다. 차차 음식에 적응해 가지만 음식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참여자 6, 9). 참여자들은 어머니(참여자 1, 2, 3, 5, 7, 15)나 본인(참여자 9, 10, 11, 12, 13, 16)들이 직접 모국의 음식을 해 먹으며 차차 한국음식에 적응해 간다.

한국음식 좋아요. 삼계탕, 불고기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반찬은 싫어요(참여자 전체). 한국 음식 적응 못해서 배 자주 아팠어요(참여자 6). 한국음식 먹기 힘들어 물 말아서 밥만 먹어. 나 입 파선에 흑 생겼어. 심장도 안 좋아(참여자 9).

ㄷ. 의붓아버지가 불편함

참여자들이 없을 때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가 친밀하지만, 참여자가 있을 때는 참여자와 어머니가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서 친밀하므로 의붓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의붓아버지와 단 둘이만 있는 시간은 어색하며, 딸들은 집안에서 서의 의복 등에 신경이 쓰여 더 불편해한다.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웃으면 아빠가 질투해요. 나 집에 없으면 엄마 아빠 사이 아주 좋아요. 나 있으면 안 좋아요(참여자 12). 아빠와 나...집에 둘이 있을 때 각 방으로 들어가요. 어색해요. 불편해요(참여자 5, 6, 14). 잠자다가 아빠 오면 인사하러 나가야 돼. 옷 갈아입어야 해서 불편해요(참여자 10, 11, 12).

⑤ 두려움

ㄱ. 의붓아버지의 성적측면 염려

참여자중 일부 딸들은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두려워하였고, 일부 참여자의 어머니도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부터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야간 일을 하는

어머니들은 딸이 혼자 살도록 방을 얻어 주거나, 야간 일을 그만두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들도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3일간 한국 아빠, 엄마, 나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야간일해요. 한국 아빠 술 먹고 새벽 3시 4시 나의 방문 두드려서 무서워요. 한국 아빠 아침에 술 깨면 어젯밤에 술 취해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해요. 아빠 무서워서 원룸 얻어 나왔어요(참여자 12). 참여자 2의 엄마는 의붓아버지와 딸만 같이 있는 것을 염려하여 나와 같이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런데 참여자 2는 아빠 너무 좋아하고 아빠 조심 안 해요(참여자 11).

ㄴ. 어머니와 관계단절

참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이다. 어머니와의 관계단절로 용돈을 받을 수 없거나 모국으로 돌려보내질 것을 두려워한다.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요구를 충족시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한다.

한국어 공부 안 하면 엄마가 용돈 끊겠다고 해요. 엄마가 용돈 끊을까봐 무서워요(참여자 3, 14). 나 한국어 공부한지 다섯 달 됐어요. 다음 달까지 한국말 못하면 엄마가 중국으로 돌려보내세요. 나 중국 가기 싫어요(참여자 2).

⑥ 외로움

ㄱ. 가족 및 친구의 부재

모든 참여자들은 모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한국에는 친밀하게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어려움이나 비밀이야기 할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어머니에게도 어려움이나 비밀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지며 모국의 가족이 보고 싶어서 모국에 다녀오고 싶어 한다.

어려움이나 비밀이야기 할 사람 없어요. 친구에게도 말 안 해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점점 이상한 소문 퍼져요. 엄마한테만 조금 이야기해(참여자 전체). 중국 아빠 너무 좋아. 제 생각은 다음에 엄마 아빠 재결합하면 좋겠어요(참여자 8). 얼마 전에 중국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참여자 11).

ㄴ. 어머니와 소원함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모자, 모녀가 즐거워하였으나 살아보니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부른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살아요(참여자 7, 8, 9, 10, 11, 12, 13, 16). 오래 떨어져 살아서 엄마에 대해서 잘 몰라요(참여자 1, 3, 4, 7, 10, 12, 13, 14). 엄마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하다는데, 나는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 답답해요(참여자 2). 엄마는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싫어(참여자 11).

(3) 맥락적 조건

① 기대감

ㄱ. 개인적 성취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모국에서 문제가 많고,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삶을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기대감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개인적 성취 기대에 부풀었다.

중국에서 경찰서 사람에게 돈 주고 전과 기록 다 없애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새롭게 살고 싶고...한국에서도 잘 못살고 실패하고 왔다는 말 듣기 싫어요(참여자 16). 중국에서 돈 없어서 힘

들게 살았어요. 중국에서는 돈 조금 벌지만 한국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한국에서 번 돈 중국에 집 사고 싶어요(참여자 7, 8, 12, 13, 15, 16).

ㄴ. 가족적 기대

참여자들은 모국에서 어머니가 없이 외가(참여자 3, 9, 14, 15, 16), 친가(참여자 6)에서 살거나, 유치원(참여자 1), 기숙사(참여자 4, 10) 등에서 살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등을 가끔 만나면서 살았다.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기대를 크게 가졌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를 가졌다.

엄마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기 어렵고...(참여자 7, 12, 13, 14) 나에게도 아빠가 생긴다는 기대가 컸어요. 두렵기도 했지만...행복한 가족을 꾸꾸었어요(참여자 1, 2, 3, 4, 5, 6, 12, 13, 14, 16).

② 사회적 차별

ㄱ. 차별

취업하여 돈을 번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중국 사람이라고 임금을 조금 주고 중국 사람을 따돌리고 한국 사람끼리만 어울림을 경험하였다.

돌 자르는 일 해요. 한국 사람은 130만원, 150만원 줘요(참여자 6). 나 100만원 받아요. 한국 식당도 한국사람 100만원, 중국사람 70만원 줘요(참여자 7, 9, 10, 12, 13).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단일 민족이라 자기들끼리만 아는데요. 우리 같은 중국 사람들 왕따예요(참여자 8).

ㄴ. 무시

참여자 13은 중국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고 특히 손님들이 술을 먹었을 때 나쁜 말을 해서 한국생활이 힘들다고 한다. 참여자

8, 13, 15, 16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든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해 칭찬을 받는 것을 경험하였고, 참여자 16은 수도요금 혼자 사는데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일 힘든 일은 손님들이 술 먹고 나쁜 말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게 나쁜 말인지는 알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나빠요(참여자 9, 10, 13). 나 말 못하니까...내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해서 칭찬받아요(참여자 8, 13, 15, 16). 수도요금도 주인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해. 이상해도...(참여자 16).

③ 문화적 차이 인식

ㄱ. 수직적 문화차이 인식

의붓아버지는 참여자들에게 예의 바르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거부장적인 태도로 잔소리, 소리 지름, 폭언, 폭행 등을 하기 때문에 위축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선후배관계가 수직적 관계에 있음과 남녀가 평등한 문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한다.

중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 같아요. 한국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절 지켜요(참여자 5, 14). 아빠에게 예절문제로 많이 혼나요. 아빠가 오시면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대면대면 한다고...(참여자 1, 3, 5). 중국은 선생님과 학생이 똑같아요(참여자 2, 3, 14). 일부 학생들 이거 불만 있어요. 한국은 선생님 특별해요(참여자 14). 중국은 몇 살 차이는 다 친구야. 한국은 선배후배 관계를 따져(참여자 7, 8, 9, 10, 12, 13, 15, 16). 중국 남자는 설거지, 청소 해. 한국 남자는 안 해. 나 중국 남자랑 결혼해(참여자 9, 10).

ㄴ. 정서적 문화차이 인식

참여자들은 한국학교의 규칙이 많아서 힘들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문화, 남녀사이의 문화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참여자 16은 모국과 결혼 문

화가 다르며, 결혼이 늦어지면 모국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한국학교는 규칙 많아서 힘들어요. 핸드폰 사용 안돼요. 담배 피워도 안돼요. 게임해도 안돼요. 벌칙으로 봉사활동이나 운동장 청소해요(참여자 14).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남의 일에 관심 없어요(참여자 7, 9, 12, 14, 16). 중국은 남자, 여자 만남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어떤 한국 아빠는 의붓딸이 12살인데 밖에서 남자 조심하라고 말해(참여자 11, 12). 중국 작은 도시에서는 일찍 결혼해요. 나 24살... 3년 기술학교에 가면 27살. 그때까지 결혼 안하면 나 죽을병 걸린 지 알거예요.(참여자 16).

(4) 중재적 조건

① 외적 자원

ㄱ. 가족의 지지

참여자 2, 4, 15는 의붓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편이며 참여자 10은 직장 생활할 때 의붓아버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와 자신을 자가용으로 출퇴근시켜 주었다. 참여자 9, 11은 의붓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예뻐한다. 참여자 3, 6, 15는 모국에서 온 친척들이 심적 의지가 되어 한국생활에 정서적 도움을 준다. 참여자 9, 13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고 있으나 돈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용돈을 준다.

한국 아빠 자식은 없어. 나 예뻐해(참여자 9). 아빠가 1년간 나랑 엄마를 회사에 태워다 주고 태워 왔어요(참여자 10). 한국 아빠는 잔소리 안 해 좋아요(참여자 2). 한국 아빠는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참여자 4). 엄마가 매달 50만원씩 줘요. 내가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하고, 엄마가 용돈도 줘서 어렵지 않아요(참여자 9). 아빠가 미워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삼촌이 라면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 주
고...(참여자 3). 이모가 군산에서 공장해요. 가끔
가서 아르바이트 해요. 외롭지 않아요(참여자 15).

나. 친구의 지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워 같은 나라 친구들과 어울린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시장도 가며, 댄스학원에 다니
기도 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도 한다. 남자,
여자 친구들끼리 모여 맛있는 음식도 해먹거나
사먹으며, 주로 당구를 치며, 아이스링크장도 가
면서 즐거워한다.

우리 모여서 그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나
서로 이야기해요(참여자 7, 12, 13, 15, 16). 레인
보우스쿨 친구들끼리 수업 끝나고 자주 만나요.
친구 집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같이 시장도 가
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중국 음식도 해 먹고,
식당에서 사먹기도 하고, 주로 당구치고 놀아요
(참여자 7, 12, 13, 15, 16). 레인보우스쿨에 한국
대학생 멘토 와요. 언니 같아 좋아요(참여자 5,
11). ○○대학교 어학원에서 1년 공부 했어요. 대
학생 만나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참여자 12).

다. 지역사회 지지

IK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지원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센터의 모든 한국어 수업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배려하였다. 참여자들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단조롭고 외로웠던 생활이 즐
겁고 풍요로워졌다고 한다. 또한 레인보우스쿨
교사들이 한국생활적응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
다고 한다. 참여자 6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않았으며,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익산 경찰서의 운전면허 자
격증 취득, 익산시청, 적십자사, 종교단체의 쌀
및 반찬지원,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미술치

료, 색동경제센터의 경제교육 등의 지원을 받았다.

레인보우스쿨 겨울방학 때는 다문화센터의 한
국어 수업 받았어요. 운전면허증 자격증 반 수업
도 들어요. 센터 행사에 가면 한국생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전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엄마와
레인보우스쿨 선생님 이에요(참여자 전체). 선생
님과 박물관, 전주한옥마을, 여수엑스포도 가고...
한국음식도 사 주시고...고마워요(참여자 전체).

② 내적 자원

ㄱ. 자기 존중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초기에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모국에서 부모의 이혼과 어머니 부재의
삶으로 자존감이 낮았을 것이라 추측해 보며, 이
주한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잃게 된 것 같다. 참
여자 3, 7, 14, 16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자기모습
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며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며 자존감이 낮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장점을 자신감이라고 말 할 만큼 나아지
는 모습이였다.

나의 장점은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5). 구인광고 신문 알아요. 내가 전화해서 일자리
구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참여자 7). 한국은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적응하고 있어서 자랑스러
워요(참여자 5).

ㄴ. 적극성

일부 참여자들은 의지가 강하고 한국생활적응
을 위해서 적극성을 띤다. 참여자 2, 4는 의붓아
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참
여자11은 대학에 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한국어능
력시험을 준비한다. 참여자 4, 12, 13, 15는 불임
성이 있고 사교적인 성격이다.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도 한국어 공부하려고 집에 가요(참여자 11). 사람들이 저에게 붙임성이 있고 사교적이라고 말해요(참여자 4, 12, 13, 15). 아빠에게 물건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잘 해요(참여자 2, 4).

(5) 작용/상호작용 전략

① 현실 회피하기

ㄱ. 의붓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음

참여자 1은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부부관계도 이혼의 위기에 있으며 참여자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서 어머니는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참여자는 국적취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자 1, 3, 5, 6, 7, 8, 9, 16은 의붓아버지를 싫어하며, 참여자 14는 법적인 관계일 뿐이라며 의붓아버지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한국아빠랑 가까워지려고 노력 안 해요. 중국 아빠는 젊어요. 한국 아빠는 나이 많아서 어색하고 적응이 안돼요. 한국아빠 때문에 한국생활이 불행하고 우울해요(참여자 1). 한국아빠와 집에서 말 안 해요. 한국아빠는 법적인 아파일 뿐 이에요....(참여자 14). 중국 아빠 전화 와요. 한국국적 취득하면 끝이라고. 나 고민 많았어요(참여자 7).

ㄴ. 미래를 생각하기 싫음

참여자 3, 5, 8, 14는 장시간 인터넷게임을 하며, 특히 14는 친구 집으로 컴퓨터를 옮겨 며칠씩 게임을 할 만큼 중독 상태를 보였다. 참여자 2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중독 상태로 보여진다. 참여자 8, 9, 12, 14, 15는 한국 생활이 힘들 때 가끔씩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참여자 9, 14, 15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참여자 2, 3, 4, 5, 6은 자신의 존재감을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교

사들은 당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체성 문제가 가려진다는 느낌을 받으며 참여자들의 삶에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정체성 문제가 떠오르게 될 지, 이대로 가려질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한다.

3일간 친구 집에서 컴퓨터 2대 붙여서 게임해요. 엄마한테는 거짓말해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참여자 14). 한국생활 힘들어. 술 먹어...(참여자 8, 9, 12, 14, 15))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담배를 거의 하루에 한 갑 피워요(참여자 15).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것으로 풀어요(참여자 2). 힘들 때 무조건 잠을 자요(참여자 4, 7, 9).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고민 없어요. 한국에 와서 당장 한국말도 배워야 하고, 한국문화도 알아야 하고...새로운 거 다 배워야 해요(참여자 2, 3, 4, 5, 6). 한국 환경 좋아요. 깨끗하고...한국생활 다 좋아요(참여자 3, 4, 5, 6).

② 대안 찾기

ㄱ. 미래 설계

참여자 13은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참여자 7, 12는 한국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에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참여자 12는 의붓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국으로 귀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참여자 7은 한국의 미용기술을 배워 모국에 가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8, 11, 15, 16은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

10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해 머리 터지게 고민해요. 한국에서 돈 벌어. 차도 있어. 내 집도 있어(참여자 13).나 제주도 관광가이드 되고 싶어요(참여자 12). 한국 기술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 많이 벌어 엄마 편하게 해 주고 싶어요(참여자 14). 나 한국에 오자마자 엄마 아는 하이테크에서 일해요. 일 계속하면 한국말도 못 배워요. 나 앞으

로 자동차 정비 배워요. 그래서 나 한국말 배워요(참여자 8). 국적취득하려고 한국어 공부해요(참여자 6). 국적 안 따면 한국에 살기 불편해요. 우리 영주권하고 싶어도 못해(참여자 7, 12). 엄마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엄마도 살기 힘들어요. 아르바이트해(참여자 7, 8, 11, 13, 15, 16).

ㄴ. 적응방법 찾기

참여자 7, 8, 9, 10, 11, 12, 13, 16은 월세 방이나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사는 방법을 찾았다. 힘들 때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국과 모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다고 한다. 1년에 한번 정도 모국에 가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오고 싶어 하였다. 9, 10, 12는 모국 사람과 결혼하여 모국에 가서 살 꿈도 꾸어 본다. 참여자 16은 인터넷 사이트의 자조모임에 나가서 슬픈 마음을 푼다고 하였다.

한국 아빠와 함께 살기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나아요(참여자 7, 8, 9, 11, 12, 16). 의붓 언니 때문에 혼자 살아요(참여자 10, 13). 1-2년에 한번은 중국에 가요. 아빠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참여자 2, 8, 12, 13, 15, 16) 국적취득하면 중국에 3개월 있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중국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참여자 9, 10, 11, 12).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나라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안 위험해요. 모임 있어서 대전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면 슬픔이 사라져요. 마음 아픈 게 없어져(참여자 16).

(6) 결과

① 모국적 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

ㄱ. 모국문화 정체성이 강함

참여자 대부분은 모국문화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모국인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모국과의 연결 고리를 가지려고 한다.

집에서 중국음식 해 먹어요(참여자 9, 10, 11). 중국식품점에서 사요(참여자 9, 10, 16). 중국에서 먹은 그 맛이 안 나서 너무 아쉬워요(참여자 13). 중국에서 온 친구들만 만나고, 밤에는 중국 친구들이랑 날마다 채팅해요. 채팅하면 마음이 많이 풀려요(참여자 7, 9, 10, 11, 12, 13, 15, 16). 중국 식당은 먹을 거 많아요. 한국은 노래방, PC방밖에 없어요(참여자 7, 15, 16). 나 모국사람 이에요(참여자 2,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

ㄴ. 일시적 체류로 생각함

참여자 2, 7, 8, 9, 10, 11, 12, 13, 15는 모국으로 귀환할 계획이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막연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모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있으며, 참여자 13, 15는 20년 후쯤으로 계획했으나 한국생활이 힘들어서 곧 모국으로 귀환할 계획이다.

엄마 한국아빠 10살 차이나요. 한국아빠 생각은 아빠 죽으면 엄마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엄마 국적 안 따고 영주권만 땀어요(참여자 12). 나 중국 사람이야. 돈 많이 벌어서 중국 가서 살아. 1년에 한두 번 엄마 보러 한국에 올 거야. 이제 엄마걱정 안 돼(참여자 13). 중국아빠와 연락해요. 한 달에 한번(참여자 14), 일주일에 두, 세 번(참여자 2, 15), 일주일에 한번(참여자 8, 11, 13). 엄마 한국국적 시험 떨어져서 기분 너무 좋아요(참여자 2).

② 한국문화의 제한적 수용

ㄱ. 한국문화의 장점 인정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문화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보험체계, 기술의 발달, 쾌적한 환경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중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돈 없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큰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해요. 한국은 보험이 좋아요(참여자 7, 8, 12, 13, 15, 16). 한국은 자동차기술이(참여자 5, 8). 미용기술이(참여자 7) 정보기술이 발달했어요(참여자 14). 한국은 공기가 좋아요. 하얼빈 공기 안 좋아요. 밖에 놀면 먼지 많아요. 신발도 하루면 빨아요(참여자 11, 16) 한국은 쾌적하고 깨끗해서 좋아요(참여자 전체).

나.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모국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사는 경향이지만 모국의 문화를 따르면서 한국의 문화도 따르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참여자들의 생각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중국사람 이에요. 중국 문화를 따르면서 한국 문화를 따르고 싶어요(참여자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필리핀 문화를 따르면서 한국문화를 따르고 싶어요(참여자 6). 한국에 살아도 괜찮아요. 중국에 살아도 괜찮아요(1, 7, 8, 9, 10, 11, 12, 13, 14, 15).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아(참여자 7, 15, 14). 한국에서 2년 반 생활하고 중국에 한 달 동안 갔어요. 중국 더러워요. 한국음식이 생각나고 밥을 먹는데 김치가 있어야 할 거 같고...기분 이상했어요. 한 달 동안 친구 만나고 즐거웠어요. 그렇다고 중국에 계속 살 생각은 없어요(참여자 16).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참여자 3, 4, 16).

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경험의 핵심 범주로 나타난 특성

중도입국청소년 문화적응 경험의 핵심 범주는 어머니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문화차이가 있는 낯선 세상으로 이주하여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국의 정체성이 유지 및 강화 되거나 한국 사회 문화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되므로 ‘낯선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뿌리내리기’로 명명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살게 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의붓아버지의 술주정, 특이한 성격,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어머니의 결혼생활이 불행해 보였고, 기대와 다른 한국의 학교 및 사회 환경, 자신으로 인해 부모가 자주 싸우고 결국 어머니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등 뜻밖의 상황에 황당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들 어머니의 불행과 의붓아버지가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한 간섭을 하여 분노감을 느꼈고, 의붓아버지와 의붓 형제 및 한국인 친구들에게 배척당하고 소외감이 들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음식에 대한 적응이 힘들고, 의붓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여 이질감이 컸다. 의붓아버지가 딸들에게는 성적으로 두렵고 어머니는 의붓아버지와 딸의 성적 측면을 염려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어머니와 오랜 별거로 어머니마저도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외로워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의 문제가 심각하다. 참여자들은 모국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불행과 한국 아버지의 냉대로 다시 상처받은 경험을 가진 자이다.

2.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 적응과정 분석

중도입국청소년 개개인의 한국생활경험 특성을 분석하여 도출된 범주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적응과정을 5단계로 설정하였다. 즉 ‘주눅 들음의 단계’, ‘후회 및 분노의 단계’, ‘둘러보고 시도하는 단계’, ‘어려움을 절감하고 곁도는 단계’, ‘현실을 수용하고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이 5단계는 참여자들이 한국입국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겪는 심리적 변화이다.

1) ‘주눅 들음 단계’

‘주눅 들음의 단계’는 참여자들이 한국생활에 대해 막연함을 갖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 없이 입국한데 기인한다. 참여자들은 의붓아버지와 그 가족들과 한국생활을 시작하면서 ‘황당함’, ‘소외감’, ‘분노감’, ‘이질감’, ‘두려움’,

‘외로움’등을 느끼기 시작한다. 낯선 세상에 들어 가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며,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움츠러들면서 주눅이 든다. 이 단계에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하고,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혼자 삭이며, 향수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생기며 ‘현실 회피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2) ‘후회 및 분노의 단계’

‘후회 및 분노의 단계’에서도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큼을 알게 되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경험, 문화적 차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황당함’, ‘분노감’, ‘두려움’, ‘소외감’, ‘이질감’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이 낯선 세상에 다가가 어울리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참았던 정서를 표출하는 단계이다. ‘현실 회피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나타낸다. 후회 및 분노의 가장 큰 이유는 의붓아버지의 냉대와, 어머니의 고생스러움에 대한 인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과거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혼으로 인한 불행한 상처와 힘들게 살아왔던 기억을 상기하며 현재의 상황이 그때보다도 더 힘들게 느껴지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에 분노한다. 참여자들은 입국 초기에 ‘주눅득음 단계’에 있었고, 현재는 ‘후회 및 분노의 단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불화하는 일부 참여자는 다음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분노감이 있었다.

3) ‘둘러보고 시도하는 단계’

‘둘러보고 시도하는 단계’인 참여자는 4, 5, 6, 11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어야 함을 자각하고 ‘외적 자원’, ‘내적 자원’의 중재적 조건 영향을 받아 한국생활 적응을 시도해 본다. ‘황당함’, ‘소외감’, ‘분노감’, ‘이질감’, ‘두려움’, ‘외로움’ 현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안 찾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용

한다. 새로운 세상에 다가가기 위하여 먼저 스스로를 조절해 나간다.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학원에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인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노력한다. 국적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도 한다. 혼자서 살거나 모국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는 등 다른 적응방법들을 찾아보고, 모국사람과 결혼하여 모국으로 갈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모국을 갔다 오면 된다는 대안들을 찾으며 심리적인 위로를 삼는다.

4) ‘어려움을 절감하고 견도는 단계’

‘어려움을 절감하고 견도는 단계’에 있는 참여자는 1, 2, 3, 8, 9, 10, 12, 13, 15, 16이다. ‘어려움을 절감하고 견도는 단계’는 둘러보고 시도해본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잘 살아보기 위하여 노력은 하지만 벽에 부딪히게 되어 어려움을 절감하게 되는 단계이다.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학교 적응이 어렵고, 기술을 배울 수도 없는 처지임을 알고 목표를 포기하며 혼란스러워한다.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모국에 1-2년에 한 번씩은 모국을 방문하고자 한다. 한국의 의붓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함께 모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에서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너무 어려워 향후 모국으로 돌아갈 계획인 참여자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외적 자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적 자원’의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덜 받으며, ‘현실 회피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5) ‘현실을 수용하고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현실을 수용하고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는 참여자 7, 14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적 자원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업이나 일이 안정을 찾으면서 보다 성숙하게 현실을 수용하고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 기대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차이가 문제시 되지 않는다. 중재적 조건인 ‘외적 자원’과 ‘내적 자원’으로 현실을 수용하고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한다. 심리적으로 편안하며 한국문화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위 적응의 5단계는 거주기간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둘러보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절감하고 걷도는 단계’를 반복한다. 가족불화가 심하거나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 및 기술습득이나 취업 등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둘러보고 시도하다가 안정된 적응기로 들어서는 것과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어려움을 절감하고 견디지 않도록 한국어 지원,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 정서·심리적 지원이 급선무이다.

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 적응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낮선 세상에 제한적으로 뿌리내리기’의 유형분석은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각 범주간에 나타난 관계를 정제화하고, 자료의 압축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적응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적극적 노력형’, ‘무계획적 순응형’, ‘학업유지를 위한 현실 순응형’, ‘소극적 노력형’, ‘경제적 추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형’의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1) 적극적 노력형

적극적 노력형은 참여자 4, 7, 11, 14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적응을 보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대안 찾기’로 적응하면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유형(참여자 7, 14)과 입국 초기부터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유형(참여자 4, 11)이 포함되었다. 참여자 7은 입국초기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위염을 앓자 어머니가 모국으로 귀환 조치하였다. 모국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고 한국생활이 그리워 자발적으로 재입국하였다. 참여자 14는 게임중독 상태에 있었으나 기숙형 대안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한국생활에 정착하였다. 한국생활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적극적 노력형에게 다시 어려움을 절감하고 견디지 않도록 적응이 수월한 학교 환경과 사회 환경의 마련이 시급하다.

2) 무계획적 순응형

무계획적 순응형의 참여자는 5, 6이다. 이 유형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한국생활을 즐긴다. 이 유형은 한국생활이 좋지만 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모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문화적 혜택을 적게 받은 반면 한국생활은 비교적 낫기 때문에 의붓아버지의 가부장적태도가 싫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 지는 것 같다. 현실지각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유형은 한국에서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3) 학업유지를 위한 현실 순응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유형중 학업유지를 위한 현실 순응형은 참여자 1, 2, 3이다. 학교청소년으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어머니와 같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혼자서 갈 수 없는 현실에 순응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학령기의 학업을 위해 불가피한 현실순응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학교 환경이 이들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면 불가피한 현실순응을 포기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학교 적응이 어려워 레인보우스쿨로 돌아간 사례들이 있음을 볼 때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용이하게 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4) 소극적 노력형

소극적 노력형은 참여자 8, 9, 10, 12, 16이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목표는 세웠으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강한 의지가 없다. 일시적인 노력을 하나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없는 유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 즉 경제적 추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더불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외국인이나 다름없으므로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통한 대학입학 가능, 체류 신분의 보장 등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5) 경제적 추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형

이 유형의 참여자 13, 15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입국초기에는 한국에 정착할 생각을 가지고 왔으나 정착해서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국으로 귀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제적 추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형은 한국의 3D업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이를 모국으로 가져가 행복한 삶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유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유형의 참여자가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처음부터 경제적 성취가 아니었으며 한국에서 살기 너무 어려워서 내린 결정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응과정과 적응유형이 주는 함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교편입학과 취업이 너무 어려워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

감은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한국생활적응의 필수도구인 한국어가 필요하며 가정 내에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편입학 및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 모국어로 교육받고 모국어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여 학교 진입이나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회 문화적응 과정과 적응 유형을 살펴보고, 학교 진입이나 사회 진출 이전의 공백 기간에 효율적이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IK시에 6개월 이상~5년 이하 체류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16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의 문화적응 경험 특성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이 무엇인가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가운데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경험 패러다임중 인과적 조건은 ‘어머니의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이며 핵심범주는 ‘낯선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뿌리내리기’이다. 중심현상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서는 ‘황당함’, ‘소외감’, ‘분노감’, ‘이질감’, ‘두려움’,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기대감’,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이 인식’이고, 중재적 조건은 ‘외적 자원’, ‘내적 자원’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실 회피하기’, ‘대안 찾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는 ‘모국적 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 ‘한국문화의 제한적 수용’이었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과정의 단계는 ‘주눅 들음의 단계’, ‘후회 및 분노의 단계’, ‘둘러보고 시도하는 단계’, ‘어려움을 절감하고 걷도는 단계’, ‘현실을 수용하고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 유형은 ‘적극적 노력형’, ‘무계획적 순응형’, ‘소극적 노력형’, ‘학업유지를 위한 현실 순응형’, ‘경제적 추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형’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한다는 것이다. 모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받고 입국하도록 제도화하거나 입국 후 이들이 학교 입학과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와 교육 내용의 연구가 시급한 과제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모국의 언어로 취업할 수 있는 기관과 그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연계도 중요하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이 어려운 요인은 가족분화와 의붓아버지의 냉대, 의붓아버지와 딸의 성문제 등이다.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상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가족생활을 지원할 대책이 요구된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는 현실과 불행한 가정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의붓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순화할 수 있도록 정서·심리적지원도 시급하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낯선 세상에서 모국인과 교류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한국사회에 제한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볼 때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와 모국어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한 어머니는 보상심리로 중도입국청소년을 과잉보호하고, 의붓아버지는 무조건 감싸는 어머니와 충돌하며, 중도입국청소년과의 문화차이, 경제적 부담감,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에서 부부갈등이 심각해진다. 따라서 추후 중도입국청소년의 다문화가정에서 재혼가족 적응상의 어려움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이 모국어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의 연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연구가 그들의 학교적응에 초점을 둔 반면, 학교진입과 사회 진출 이전의 문화적응에 관심을 가졌다. 연구자가 중도입국청소년을 1년 반 이상 지도하면서 그들과 충분한 친밀감의 형성을 기반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유미·신혜중(201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4), 1394-1410.
- 2) 강현주(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국성하(1996). 중국 조선족의 한국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숙명여대 아시아

- 여성연구소, 45(1).
- 6) 김지혜(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불안과 문화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진희(2011).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다문화교육연구, 4(2), 43-72.
 - 8) 류방란·오성배(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9) 박지윤(2011).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통역 보조교사제에 대한 제언. 이화어문논집, 29, 103-125.
 - 10)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여성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
 - 11) 송복희(2012). 아시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 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안윤지(2011). 국제재혼가정 이주청소년들의 언어·문화적응교육에 대한 실태 탐색.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양계민·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어여성정책연구원.
 - 14) 여성가족부(2012). 다문화가족 통계.
 - 15) 오경석·양계민·조성원·류성환·조윤희·정혜실·이장혁(2009).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연구. 무지개청소년센터.
 - 16) 오경석(2010). 입국초기 이주청소년의 경험과 다문화 사회 복지의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7(3), 33-54.
 - 17) 오성배·서덕희(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18) 이병철·송다영(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19) 이소라(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재분(201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교육 지원 방안,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진단 토론회. 무지개청소년센터,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 21)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1). 다문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가족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 22) 조옥이·박석준(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교육 사례 예시를 통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6, 217-238.
 - 23) 최영권(2012).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최종혁(2011).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신정.
 - 25) 조혜영·양계민(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26) Coleman, H. L. K., Casali, S. B. & Wampold, B. E.(2001). Adolescent strategies for coping with cultural divers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 27)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조홍식의 공역. 86-115.
 - 28) Kim, T. E. & Gato, S. G.(2000). Peer delinquency and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redictor of Asian American adolescent delinquency. Deviant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1(4), 331-347.

- 투 고 일 : 2013년 3월 30일
- 심 사 일 : 2013년 4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21일